**19-W 교육평가 2013-12815 이동주**

**[역량평가] 관련하여 진행한 토론 보고서**

**가. 학교에서 역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 학생 개인의 역량을 교사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 역량의 빙산 모델에서 가시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수면 아래에 있는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어떤 범위까지 정의하는가에 따라 관찰과 평가의 범위가 달라진다. 초점하는 영역의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시험이나 형성평가 등의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파악하고자 하는 영역까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나 잘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시험점수는 역량의 하나인가? 전부인가?**

- 시험 결과는 역량의 전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결과값이다. 따라서, 역량의 하나이다.

**3.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 시험과 형성평가 등의 평가결과와 관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4.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학교 교육에서 지향하는 ‘훌륭한 학생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교육이 성공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시험에서 훌륭한 점수를 얻는 것이 더 좋은 학생이라는 패러다임 위에 있었다. 학교 교육도 이에 맞추어 교사에서 학생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일방향적이고 다소 수동적인 형태를 띄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생이란 교사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다른 학생이 이러한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통적 학교 문화에서 학생의 가치관과 성격, 사고방식 등에 대한 평가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생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한다.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학생간의 소통이 중시되며 고정된 교과 지식 이외에 창의성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의 ‘사회성’이 역량의 핵심 가치로 부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가진 가치관과 성격 등 서로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으로 자리했다는 것은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학교교육은 이론 중심 vs. 경험 중심**

**1. 교과를 교육하는 것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동일한가?**

- 교과를 교육한다는 것을 앞서 논했던 전통적인, 고정된 교과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비교했을 때 역량을 길러준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 핵심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성’을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교과를 교육하는 것만이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없게 된 만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겠다.

**2. 실제 생활에 쓸모 없는 지식이나 기능이 있는가?**

- 실제 생활에 쓸모 없는 지식이나 기능은 없다는 데에 조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3.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학교 체제 하에서 꼭 실시해야 하는가?**

- 필수 교육과정에서 전달되는 교육 내용은 시대가 선정한 필수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교육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역량 성장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